

## 서울총회는 전세계 치과인의 올림픽

- 5만여명의 치과계 가족 참가예상
- 내년 9월 5일부터 KOEX에서

세계치과사들의 큰 잔치인 제 85차 FDI 서울총회가 내년 9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덴탈 올림픽(Dental Olympic)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게 될 FDI 서울 총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5만여명의 치과계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현재 FDI의 정회원국은 96개국으로 FDI 총회가 회원국들을 돌아가며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백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면에서 서울총회는 현대에서는 다시 치를 수 없는 큰 대회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내년에 치러질 서울총회에서 약 3천8백만달러의 관광수입이 예상되는 등 서울총회는 치과의학은 물론 모든 치과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1세기 치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테마로 열리는 서울총회는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치협의 제42차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치러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이제까지의 종합학술대회 때보다 더욱 다양하여 임상 의들에게 필요한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세계유명 대학들의 특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 〈역대 주요 FDI 총회 Theme〉

▲ 1990년 78차 싱가포르

Theme : New Frontiers in Dentistry

▲ 1991년 제79차 이태리 밀란

Theme : Oral health for All

▲ 1992 제80차 독일 베를린

Theme : Knowledge-Quality-Skill,  
Keystones in Dentistry

▲ 1994년 제 82차 캐나다 밴쿠버

Theme : The Challenge of the Nineties-  
Living with New Technology

▲ 1993년 제81차 스웨덴 에테보리

Theme : World Focus on Oral Health

▲ 1995년 제83차 홍콩

Theme : None

▲ 1996년 제84차 미국 올랜드

▲ 1997년 제85차 대한민국 서울

Theme : A Map for dentistry in the  
21st century

## 85차 FDI 서울총회 학술프로그램 다양

- 제42차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치러져
- 2천년대 치의학의 전망을 연재 마련

내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85차 FDI서울총회에는 심포지움 특강유료강연, 테이블클러닉, 포스터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대부분의 학술강연은 오전은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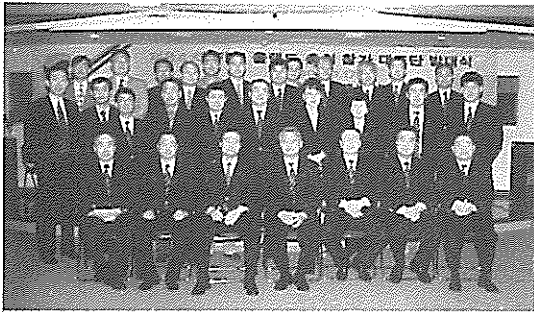
심포지움 및 특강에서는 2천년대 치의학에 대한 전망과 진단은 물론 감염성 질환의 예방, 임플란

트 시술의 성공법, 노인치과학의 실태 및 문제점, 아시아의 구강증진방안 등의 여러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또 42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HIV환자의 치과적 관리에서부터 치과에서의 금속 알려지, 영상기법의 응용, 치과병·의원의 경영관리법 등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한편 1인당 참가비가 3만원인 유료강연과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학술강연 이외에도 각국 대표자 회의,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가자재 전시회 등이 마련되며 친선행사로는 개회식은 물론 한국의 밤과 무도회, 여성프로그램 등이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 84차 올란드 총회 참가진 발대식 장면

## “서울총회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 FDI旗도 인수받을 예정
- 지난 17일 치협회관에서 84차 올란드 총회 참가자 발대식

제84차 FDI올란드 총회 참가자 발대식이 지난 17일 오후 7시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50여명의 많은 치과계인사와 한국대표단이 참가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란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주요행사 내용을 설명했다. 오렌지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9월 28일 오전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종 학술대회, 치과기자재 전시회, 군 진회의 및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또한 한국치과계를 다른 외국치과 의사들에게 알릴수 있는 한국의 밤 행사는 9월 30일 Peabody호텔 3층 Poolside에서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번 올란드 총회에서는 FDI기를 서울총회조직위원회에 연수받게 된다.

또 9월 28일에는 학술, 여성본부, 29일에는 전시본부, 30일에는 관리·행사본부가 대회장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올란드 총회에서는 협회임원 및 전임원 7명, 조직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 작본부장 6명, 조직위원회 위원13명, 서울지부임원 17명, 지부회원 7명, 서치신협임원 2명, 협회, FDI, 서치신협사무처 5명, 부부동반 2명 등 총 59명이 참가한다.

<< 다음호에 계속 >>

## FDI 서울총회 전 대회장에서 禁煙

- 흡연은 구강암 발생의 주요원인
- 치과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제85차 FDI서울총회에서는 전 대회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FDI서울총회조직위원회와 질렌 사무총장은 FDI총회가 전세계치과 의사들의 모임인 만큼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대회장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흡연은 구강암 발생시키는 등 구강건강을 해치는 주요요인인

만큼 보건의료인으로서 솔선수범해 금연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제84차 올란드총회에서 전대회장 금연을 제의, 서울총회는 금연총회(NO SMOKING FREE CONGRESS)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